

음력 정월, 정성 어린 마음을 새기다

롯데갤러리, 오는 28일까지
전통 감성 깃든 기획 전시
'깊어질수록 꽃이 되는데'

나예심·박현철·소빈 작가
천연염색·자수·한지조형 선풍

설 명절이 있는 음력 정월을 맞아 광주 롯데갤러리가 전통의 감성이 깃든 기획 전시를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까지 2월 한달 간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깊어질수록 꽃이 되는데'이다. 나예심(천연염색, 자수), 박현철(한복디자인, 침선), 소빈(한지조형) 작가가 참여해 6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3인의 작가가 다루는 작업은 물들이고 바느질하고 옷을 짓고 또는 한 겹 한 겹의 종이로 형상을 만드는 일이다. 모두 사람을 위한 작업이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에선 수고로움 이상의 생의 다양한 감정들이 묻어난다.

천연염색한 천에 자연의 모습을 수놓는 나예심의 바느질은 차(茶)에서 비롯됐다. 우리 문화에서 차를 마시는 일이란 단순히 차를 음용하는 것 이상의 몸과 마음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작가는 모시, 삼베, 무명, 광목, 명주 등의 전통 천에 감물과 먹물, 쪽물을 들이고, 물들이 천에 조각처럼 덧대어 수를 놓는다. 단순화된 패턴으로 자리한 조각 천은 수줍게 뜬 달이 되었다가 쪽빛 강가에 수양버들 드리운 기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초롬 꽃이 담긴 화분으로, 때로는 황금빛 은쟁반 두 개 사이엔 따스한 딸로 분하기도 한다.



박현철 작 '18세기 삼회장 저고리, 허리 말기 치마'

조각천의 간결한 모양새는 사실적 묘사를 절제한 바느질과 어우러지며 정갈한 기운을 자아내는데 현대적인 미감과 전통의 멋이 공존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실을 재현하며 가리개와 발, 방석, 다포, 찻수건, 찻상보, 잔받침 등 일상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열네 살에 시작한 손바느질이 동기가 되어 한복 짓는 작업을 하는 박현철은 세간의 표현처럼 '청년 옷쟁이'다. 자연의 색을 담은 듯 편안한 눈맛을 선사하는 박현철의 침선은 손수 옷을 만들어 입었던 할머니와의 추억에서 시작됐다. 돌아간 외할머니가 입었던 옥색 치마 저고리가 문득 생각나 독학으로 그 옷을 재현하던 것에서 시작된 작가의 침선은 올해로 12년째다. 표주박생고사, 속고사 등의 고급 원단과 함께 생초, 산란, 순면까지 다양한 원단으로 우리의 전통 한복을 짓는 그는 옷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고 옷에서 사람을 드러낸다.



나예심 작 '무제'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옷들은 배넛저고리, 당의, 원삼, 도포, 삼회장저고리 외 다채로운 전통 복식을 선보이며, 출생, 예식, 평상복까지 우리 생의 주기와 함께 하는 옷의 매무새를 두루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질은 감수성을 바탕으로 시작한 작품 세계를 선보여온 소빈은 이번 전시에 기존의 한지인형 작품과 함께 고서를 다룬 근작을 선보인다. 소빈의 고서 작업은 고문서의 낱장 낱장을 별도의 화학적 접착제 없이 물로써 이어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후 오래된 종이 위에 배접하듯 올려놓은 염색 천 조각을 바느질로 고정시키는 과정은 한지조형 작업 못지않게 집중력을 요한다. 고서 위에는 주로 좌선(坐禪)한 사람이 자리한다. 형상은 세부적인 디테일이 아닌 단색의 덩어리로 표현되었는데 간결한 실루엣이 돋보인다. 유백색의 빛깔로 익어갈 달 향아리 안에 좌선한 이, 그 위에 가득 찬 만월이 떠오르는



소빈 작 '집에 가는 길-가도 가도 찢레꽃'

차고 기우는 달처럼 영글은 과실나무도 함께 있다.

세 작가의 작품에서 읽혀지는 주된 키워드는 '사람'이다. 짙은 쪽물 들인 천에서 아득한 밤하늘의 별빛을 찾기도 하고, 자연의 빛깔을 담은 옷에선 사람의 살결과 호흡이 느껴지기도 한다. 밝고 레한 불에 물끄러미 자리한 인형은 유년 시절을 상기시키며 그 옛날 그 녀석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기억하게 한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혹은 쓰이는 작품이 아닌 생의 애수와 정이 스며있는 작업에서 새해의 나를, 내 소중한 이들을 다시금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기간 중 주말인 16일과 23일에는 오후 3시30분부터 롯데갤러리 전시실에서 '나의 첫 버선 만들기', '봄날 찾자리를 위한 다포 만들기' 등 작가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062-221-1807. /이연수 기자



광주남구 하촌마을어르신 대상 미디어나눔버스 체험.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공모

광주시청자센터, 22일까지 접수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는 '2019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공개 모집한다.

미디어나눔 버스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소외계층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내 방송 장비가 설치된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다. 2시간 동안 뉴스, 라디오 등 장르별 제작과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DJ 등 방송직업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 도서산간지역 학교, 진로 체험 박물관 등 공익 목적의 대규모 행사 등 총 29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22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seo@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28일 서류심사를 통해 소외계층, 소외 지역, 신규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 062-650-0337. /이보람 기자



'하라산의 평화'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위안부 역사와 여성인권

11~13일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 특별전

이이남 작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눈물' 전시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위안부의 날을 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서 열리는 위안부의 날 기념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린다.

오는 11~13일 국회의원관 제2로비 전시관에서 열리는 'Do the right thing' 전.

이번 전시는 전 세계 작가들이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위안부의 역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작품 전시회다. 그동안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특별전에 참여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해외에서 위안부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의 중요성을 알리

기 위한 국제전시는 국제 여성가족위원회(전혜숙 위원장)와 노웅래·박광은·박주민 의원 공동 주최로 함께 한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눈물'이 전시된다.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눈물'은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작품을 통해 받은 영감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 느꼈던 애절함을 함축적 의미와 밀도있게 눈물로 형상화해 표현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실제 인물이 드러나면서 고전과 현재가 교차하며 작품에 몰입케 하는 작품이다.

이이남 작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눈물'

의 상징적인 인물 이옥선 할머니를 모델링한 평화의 소녀상 '진실'을 광주 양림동에 건립하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기리

는 활동을 해왔다.

이 작가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구명되어야 하며, 우리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와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 총 기획자인 전혜연씨는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는 일본 철거 소송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문화행사가 진행된 2014년부터 일반인들의 후원과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고 있는 전시"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본이 왜곡하려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렌데일시는 위안부의 날을 제정하고 공유지에 소녀상을 세운 도시로 매년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7월30일 위안부의 날을 맞아서는 7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전시회와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글렌데일시 소녀상은 일본 우익에 의해 철거소송이 걸린 소녀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연수 기자

위작 논란 고흐 작품 '누명 벗었다'

'과일과 밤이 있는 정물화' 진품 결론

불세출의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1점이 가짜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자리 잡고 있는 반 고흐 미술관은 소속 전문가들이 지난 연말에 반 고흐의 '과일과 밤이 있는 정물화'에 대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그림은 지난 196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이 기증을 받아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몇몇 전문가들이 위작이라고 주장한 탓에 반 고흐의 공식 작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못한 상태였다.

반 고흐 미술관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가

는 정밀 분석을 통해 반 고흐가 한 여성의 초상화를 그린 캔버스에 다시 정물화를 그렸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전의 반 고흐는 늘 가난에 시달린 탓에 종종 캔버스를 재활용하곤 했다.

풍경화 외에 고흐가 남긴 정물화로는 화려한 생동감을 내뿜는 해바라기 그림이 유명하지만 이번에 진짜로 판정된 그림처럼 다소 어두운 색채의 소품들이 포함됐다. '과일과 밤이 있는 정물화'는 반 고흐가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던 1886년 가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그가 사망한 뒤 동문안은 친구였던 프랑스 화가 에밀 베르나르의 어머니가 보관하



반 고흐 작 '과일과 밤이 있는 정물화'.

/출처 샌프란시스코미술관

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일간지 폴크스 크란트는 반 고흐 미술관이 매년 전문가들로부터 200점의 반 고흐 그림에 대한 진

위 판정을 의뢰받고 있지만 1988년 이후 공식 작품 목록에 오른 경우는 불과 14점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해년 SNS 풍자전 눈길

목포 정태관 화가, 다양한 사회현상 수목화로 묘사

목포의 중견 작가인 정태관 화백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다사다난한 사회 현상을 수목화로 묘사해 화제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12지신상의 하나인 황금 돼지란 동물을 인용해 지도자들의 사회적 결합과 악덕(惡德), 비틀어진 사회 상황 등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해년에는 남북관계가 더욱더 무르익고, 시민들의 행복과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 의미도 담았다.

정 화백의 이번 풍자전은 SNS에서 쉽

게 볼 수 있다. 기존의 미술관 전시회에 서 탈피해 미술관을 찾가지 않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작품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찾아가는 미술전람회'다.

원작은 정태관 화가가 운영하는 '화가의 집'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정 화백은 현재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 박근혜 퇴진 목표 운동본부 문화예술 총연출, 전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사회문화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은발의 청춘 열정 무대 '금호실버콘서트'

만 65세 이상 클래식·국악부분 아마추어 연주자 모집

주니어콘서트, 시니어콘서트 등 연령별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해 온 유·스퀘어 문화관이 이번엔 금호실버콘서트 연주자를 모집한다.

금호실버콘서트는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의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콘서트 시리즈로, 클래식(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독주, 합주, 독창, 중창)과 국악 부문 중 지원 가능하다.

연주회가 가능한 정도의 기량을 갖춘 개인 혹은 10인 이하의 단체는 10분 내외의 클래식이나 국악 곡을 MR, 마이크, 전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클래식 음악회만을 개최해 온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이 실버콘서트에는 예외적으로 국악 부분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연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금호실버콘서트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실버 세대의 문화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해진 만큼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콘서트가 연주자들에게 즐거운 활력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합격자는 28일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선발된 연주자는 3월 9일 개최되는 연주자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4월 3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에 서게 된다.

문의 062-360-8432. /이보람 기자